

도심도로 '포트홀' 안전사고 우려된다

제설용 염화칼슘에 도로 곳곳 구멍 '승승' 운전자·보행자 안전 위협 대책마련 시급

지난 겨울 폭설과 한파에 따른 잦은 제설작업으로 광주 시내 도로 곳곳에 금이가고 움푹 패이는 이른바 '포트홀'이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도로위 제한폭탄으로 불리는 포트홀이 광주 도심에서만 수천여곳이 생기면서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북구 두암동 한 왕복 4차선 도로.

평소 이곳은 담양군 인접지역에 동광주IC, 호남고속도로 진출입 구간으로 차량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다.

하지만 도로가에 생긴 큰 구멍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들이 급하

게 속도를 낮추거나 방향을 틀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비가 내려 깊게 파인 구멍에 빗물이 들어차 차량이 포트홀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다 인도쪽으로 흙탕물을 튀기는 등 시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었다.

또 도로와 인도사이 경계석도 파손된 채 방치,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북구 신안동과 서구 계수사거리 주변 등 시내 거의 모든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포트홀이 생기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이



광주 도심에서만 수천여곳의 포트홀이 생기면서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안으로 스며든 물기가 기온의 변화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발생하고, 약해진 지반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 생성된다.

제설작업 당시 각 지자체가 다량의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사용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염화칼슘은 도로에 쌓인 눈을 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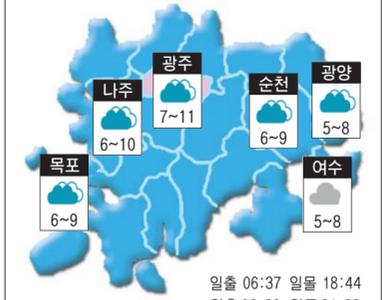
녹일수 있어 제설 효과가 뛰어나지만 염소 성분이 포함돼 있다보니 도로 부식을 앞 당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겨울 광주·전남지역에 유난히 잦은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실제 광주시가 관리하는 폭 20m 이상의 도로중 현재까지 포트홀 보수작업은 4,5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51건에 비해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포트홀의 경우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 기관의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포트홀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 복구하고 있으며 파손이 큰 도로는 임시 포장과 보수 공사를 진행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포트홀로 불편을 겪을 경우 전화 120번이나 '빛고을길지킴이' 밴드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5~10	흑산도	5~7
담양	5~10	구례	4~10
화순	6~11	곡성	5~10
영광	5~10	완도	6~8
함평	7~10	강진	6~9
무안	6~10	장흥	6~9
영암	6~9	해남	6~9
진도	6~9	고흥	6~9
신안	6~8	보성	5~8

일출 06:37 일몰 18:44
월출 08:20 월몰 21:28

목포	만조 03:59 16:15	여수	만조 10:57 23:19
	간조 09:10 21:27		간조 04:37 16:57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산악인 김홍빈 전남교육청 임용 2년간 '히말라야 희망학교' 서 등반 지도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54)이 전남도교육청 임기제 공무원이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히말라야 희망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15일자로 김홍빈 대장을 임기제(2년)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히말라야 희망학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포함한 중·고교생들에게 등반 등을 통해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히말라야 희망학교에 참가할 학생 175명을 선발해 지난달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해남에 있는 전남도학생교육원에서 예비학교를 열었다. 김 대장은 예비학교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등반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등반 요령 등을 지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4월 24~25일 전남도학생교육원에서 히말라야 희망학교 1차 캠프와 함께 입학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장은 입학식을 마치고 나서 참가 학생들과 함께 인근 두륜산에 오르며 본격적인 등반 훈련을 시작한다.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1박 2일 일정의 산악캠프를 열어 등반 지도와 함께 체력 강화 훈련을 하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김 대장의 등반 지도를 받은 학생 가운데 60여 명을 선발해 오는 10월 안나푸르나 베이시캠프(4,000여m)까지 등반할 계획이다.

한편 김 대장은 오는 4월 3일 광주 시민원정대를 이끌고 안나푸르나 등정을 위해 출국한다. 장애인 중 세계 최초로 완등 목표로 세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중 12번째다. 그는 지난해 6월 남가파르바트(8,125m)까지 11개 봉우리 등정에 성공했다. 김 대장의 안나푸르나 도전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황애란 기자



이튼튼 건강교실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열린 새싹들의 이튼튼건강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보건대학 치위생과 학생들로부터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금품수수 의혹' 광주시 전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광주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광주시 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오전 9시께 북구 대촌동 한 공원에서 전 광주시청 공무원 조모씨(61)가

나무에 매달려 숨져있는 것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 옆에는 우산과 함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서류 봉투 안에는 가족에게 남기는 말 등을 적은 4장 분량의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 기자

경찰은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조씨는 지난 2016년 광주2순환도로 1구간 운영업체인 맥쿼리와 민간투자 보증을 위한 재구조화 협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종찬 기자

보이스피싱 조력자 끝까지 추적

북부경찰, 70대 피해금 절반 회수

북부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한 후 범인 조력자를 끝까지 추적, 70대 할머니의 피해금 절반가량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로 지내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사기 피해금 절반을 받아 가로챈 혐의(장물취득)로 중국인 A씨(3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친구 B씨(23)는 지난 6일 새벽 2시 11분께 광주 북구의 한 자택에서 피해자 C(79)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택 세탁기에 보관한 3,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돈을 상부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B씨는 피해금의 절반인 1,500만원을 A씨에게 주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지난 11일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훔친 돈의 행방을 수사하다 친구인 A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 피해금 절반가량인 약 1,700만원을 회수했다.

조사결과 B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10년 이상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지내며 지날 곳을 마련해준 A씨에게 신세를 갚으려고 훔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곧장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돼 회수하기 어려우나, 이례적으로 절반가량 피해금을 회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하루빨리 피해금을 할머니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제18회 5.18 마라톤대회

접수마감 : ~ 2018년 4월 20일(금)

일시 2018년 5월 12일(토요일) 오전 08:00

장소 광주상무시민공원

종목및참가비 5.18km, 5.18km빛코스 10,000원, 10km, 하프, 30km 30,000원

접수및문의 www.518run.com / ID : jndnnews / TEL (062) 720-1014

주최 518기념재단 진남매일 | 주관 JM 스포츠 |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518구속부상자회 전라남도지부

